

예 멘 경 제 동 향

2014. 11. 1. 주예멘대한민국대사관

- Highlights -

[경제 일반]

- 예멘중앙은행, 2014.8월 외환보유고를 51.8억 불로 집계
 - * 일반부채는 2014.9월 기준 227억 불로 2014.7월보다 7억 불 증가
- 예멘의 대 EU 무역규모, 2013년 21.3억 불로 전년 대비 2.2억 불 증가

[에너지·석유·자원]

- 북부 시아파 후티 반군, 10.19 국영 석유기업 SAFER사 본사 건물에 진입
- 전력에너지부, 정부 고위급 관료 및 기업인들의 연체 전력 이용료이 5억 불에 달한다고 발표

[기타 산업]

- 이슬람개발은행, 사나 주 Artl 지역에 1.2억 불 규모의 건설 투자 프로젝트 지원 협의
- 농업관개부, 까트(qat) 경작으로 인한 커피 및 기타 농산업의 침체 문제 심각

[해외투자 및 개발협력]

- UNDP, WFP, USAID, 사우디 등 예멘 사회·경제개발 지원 방안 논의

[정세·치안]

- 신내각 구성 및 신헌법 초안 작성
- 후티반군과 AQAP, 수니파 지방부족세력 간 교전
- 남부 분리주의 독립운동 및 기타 치안 동향

1. 경제 일반

- 11.1 예멘중앙은행은 2014.8월 외환보유고를 51.8억 불(전월 대비 6천7백만 불 감소)로 집계하였으며, 같은 달 석유화학 제품 및 기본 생필품 수입액은 1.6억 불로 발표함 (10.19, 11.1 / SABA, Yemen Observer)
 - 한편, 일반부채는 2014.9월 기준 227억 불로 2014.7월보다 7억 불 증가
 - 국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부채는 2014년 상반기 37억 불로 전년대비 2.8억 불 증가
 - 예멘중앙은행 관계자는 정세 불안으로 인한 경기 침체, 지속적인 석유 및 전력시설 사보타주 등을 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
- 예멘의 대 EU 무역규모는 2013년 21.3억 불로 전년 대비 2.2억 불 증가하였으며, 수입, 수출 각각 20.3억 불, 1.0억 불로 집계됨 (10.26 / SABA)
 - EU 국가 중 네덜란드(1위), 프랑스(2위)가 주요 교역국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꿀, 커피, 과일 등 농산물, 주요 수입 품목은 전자제품, 기계류 등으로 현지언론은 보도

2. 에너지·석유·자원

가. 석유·가스

- 수도 사나를 점거(9.21부터)하고 있는 북부 시아파 후티 반군은 10.19 국영 석유기업 SAFER 사의 수도 사나에 위치한 본사 건물에 진입하여 업무가 일부 중단됨 (10.21, 10.25 / National Yemen, Yemen Times)
 - 한편, 10.24 Marib 주 Raidan 유전 부근 석유송유관에 대한 지방 부족의 사보타주로 석유 생산 및 운송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10.25 재개

나. 전력

- Abdullah Al-Akwa 전력에너지부 장관은 정부 고위급 관료 및 기업인들이 연체한 전력 이용료가 5억 불에 달하며, 2011년부터 10억 불 이상이 전력시설 수리에 투입되었다고 밝힘 (10.28 / Yemen Post)
 - 이에 따라, Al-Akwa 장관은 전력 이용료 연체, 전력시설 사보타주 문제 해결 방안과 신규 발전시설 건설을 통한 예멘 정부의 노력을 현지 언론에 게재

3. 기타 산업

가. 건설

- 10.18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은 사나 주 Artl 지역에 1.2억 불 규모의 건설 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예멘 정부와 협의하였으며, 동 프로젝트 관련 사전조사 결과를 근거로 1,300개 유닛(unit)이 건설될 예정임 (10.30 / SABA)

나. 농수산

- Abdel Amlik Al-Thor 농업관개부 차관은 까트(qat) 경작으로 인한 커피 및 기타 농산업의 침체 문제가 심각하다며, 까트 재배 제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10.30 / Al-Shorfa)
 - 2013년 예멘 농산물 생산은 전년 대비 16만5천 톤 감소하였으며, 이에 비해 까트 생산은 3천 톤 증가

4. 해외투자 및 개발협력

- UNDP(인적개발), WFP(식량지원), USAID(농업), 사우디(사회복지), 프랑스(석유가스개발) 등 국제기구 및 공여국은 예멘 정부와 예멘 사회·경제 개발, 투자 등 지원 방안 논의를 계속함 (10.19-10.31 / SABA, National Yemen 등)
 - UNDP는 예멘 정부와 유령·이중등록 공무원 철폐 등 공무원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SHRM(Strengthening Civil Service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프로젝트를 협의하여 980만 불을 지원 예정
 - Mohammed Saeed Al-Jaber 주예멘사우디 대사는 2014.9월 기준으로 예멘 사회복지 분야에 사우디 정부가 4.4억 불을 지원하여 150만 명의 예멘 주민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히고, 사우디 정부의 지속적인 예멘 지원 의지를 피력

5. 신내각 구성

- 10.14 신임 총리지명후 새로운 내각 구성작업이 예상된 바와 같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JMP(야권연합)는 동등한 입장에서 내각구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신내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제 정파간 이해

관계 충돌이 노정되고 있는 가운데

- 10.25 Khalid Bahah 신임 총리는 대언론 발표를 통하여 34개 장관직에 대하여 각 정파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각 정파들은 각 장관직에 3명씩의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고 대통령과 총리가 그중에서 1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명될 것이라 언급

※ 각 정파별 장관직(총34개) 배분 현황(관영 Saba News 등)

- △ GPC(구집권당, 9개) : 보건, 공보, 수산, 인권, 청소년체육, 관광, 지방, 무임소장관(2개)
- △ JMP(야권연합, 9개) : 기획국제협력, 교통, 사회노동, 의회, 종교, 고용, 고등교육과학, 수자원환경, 재외국민, 무임소장관(1개)
- △ 후티(6개) : 법무, 석유광물, 전력에너지, 문화, 시민봉사, 직업교육
- △ 남부분리독립주의(AI-Hirak, 6개) : 교육, 정보통신기술, 공공도로사업, 산업통상, 농업, 법률
- △ 대통령 직접 지명(4개) : 국방, 재무, 내무, 외교

○ 위와 같은 장관직 배분에 관한 Bahah 총리 발표에 대하여 JMP(야권연합)는, 장관직 배분과 관련하여 자신들은 아직 동의한바 없다하고, 현재의 배분 방식은 여타 정치세력은 무시한 채 특정정당에만 이룸을 주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

○ 한편, 10.24 후티반군지도자 Abdul Malik al-Houthi는 TV를 통해 자신들은 정부의 부패를 척결하기위해 혁명을 한 것일 뿐이라며, 배분될 장관직을 모두 남부분리독립운동세력에 넘겨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

- 장관직 할당 양보 등 후티세력의 반응과 관련한 후티측의 내각참여 거부의 실질적인 이유는, 지금과 같은 혼란의 과정에서 또 다른 형태의 과도 연립내각을 구성,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실패의 위험을 수반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관측

○ GPC(구집권당)과 남부분리독립운동(AI- Hirak) 측에서는 위와 같은 배분에 대하여 별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음.

6. 신헌법 초안 작성

- 지난 1월 종료한 범국민대화회의(NDC, National Dialogue Conference)의 결과로, 신헌법을 제정기로 합의한바, 헌법초안위원회에 따르면 신헌법초안이 현재 약80% 가량 완성되었으며, 나머지 20%는 국가형태(Federalism or United Regions), 대통령 및 장관 등 고위직에 대한 면책특권조항 삭제 등을 포함한 민감한 내용들에 대한 문구작성만 남겨둔 상태
 - 초안위원회는 연방제에 관해 거론 자체를 주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1990년 제정된 고위직에 대한 면책특권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기득권 정당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최종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10. 26 Yemen Times)
 - 한편, 하디 대통령은 10.21 초안위원회 위원들을 면담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초안작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

7. 후티반군과 AQAP, 수니파 지방부족세력 간 교전

- 후티반군은 수도 남동부 Bayda 州(Rada 市 등)에서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AQAP)와 지속적으로 교전 중이며, 미국 무인폭격기(Drone) 및 정부군 전투기도 공격에 참여하면서 최근 3일동안 약250여명의 AQAP 및 수니파 지역무장부족세력이 사망
 - 후티반군은 AQAP세력의 주요 근거지인 Manasseh 市에도 정부군의 지원을 받으며 입성하였다가, AQAP지원을 받은 수니파 지역부족세력이 하루 만에 재차 탈환
 - AQAP는 동 지역 후티지도자의 자택을 차량폭탄으로 습격하여 10여명의 후티반군이 사망
 - ※ 동 지역무장부족세력은 80여명의 후티반군이 사망하고 20여명이 포로로 잡혔다고 언급
- 한편, 후티반군은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후티지지 무장세력을 정부보안군으로 편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후티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군부내 파벌주의를 양산할 것으로 관측(10.26 Yemen Fox)
 - ※ Saleh 전 대통령이 친이란계 언론들을 이용하여, 자신이 후티반군세력을 배후에서 지원하며 주요도시를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비난한 Al-Arabia News Channel(사우디)에 대한 언론 공세 강화(10.26 National Yemen)

8. 남부 분리주의 독립 운동

- 10.21 하드라마우트 州 무칼라 市에 아덴과 같은 남부분리독립운동 캠프가 설치(분리주의운동의 핵심지역인 아덴주에는 10.14설치)
 - 하드라마우트 주민들은 이번 후티반군의 수도 사나 장악 등을 예로들며 중앙정부의 유약한 통치능력을 다시한번 보여준 사례하며,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비난(10.23 Yemen Times)
- 한편, 남부지역 출신 국회의원 33명은 남부독립시위에 지지를 표명(10.27 The Daily Star)

9. 기타 치안 동향

- 후티반군은 최근 사나 공항으로 통하는 도로상의 군캠프를 철거하였으나, AQAP의 위협 등이 상존하고 있는 등 치안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계속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겠다고 언급
- 10.25 마립 州에서는 지역부족세력에 의한 송유관 폭파사건 발생(마립주에서는 오래 전부터 일자리, 토지분쟁, 수감자 석방 등 정치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송유관, 송전탑 폭파 등을 일삼아 왔음). 끝.

■ 주예멘대한민국대사관

- 전화: (+967) 1-431-801~4 (담당: 손혁수 선임연구원)
- 이메일: yemen@mofa.go.kr - 홈페이지: <http://yem.mofa.go.kr>

■ 예멘 경제동향 소식지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대사관 대표 메일로 신청(이름/소속/관심분야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 및 의견 또한 전화/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